

# 사설

## 판결을 화합의 계기로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선 이 판결이 나오는 순간 우리 불자들의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일부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한국불교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판결문 속에 나타나 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집안 싸움이 내부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사회질서를 파괴했으니 당연히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본래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갈등은 교리에 따라 초국가적인 출세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점을 첨언하여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이다. 조계종에서도 종헌, 종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세간법의 판단에 맡기지 말아야 했다.

부처님의 출세간법은 비폭력과 자비정신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총무원장 3선여부는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의 법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원로회의가 판단할 문제였다.

결국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운동세상이 시끄럽게 사회문제화 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들이라면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종교단체의 활동도 종교의 교리 사상 등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면 세간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넘어 국법질서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다스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틀림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의 사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또 법치국가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한 집단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존엄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도 다시 새겨주었다. 준법정신은 민주국민의 기본이다.

부처님법을 앞세워 국가의 세속법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한국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정화개혁회의는 판결대로 자진퇴거하거나 종도 대중이 모두 환원할 화합의 모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만약에 국법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에 의한 강제퇴거를 자초한다면 또한번 우리 불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많은 불자들이 국민들이 조계종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최근에 다행히도 양심있는 원로, 종진스님들이 사부대중과 국민들을 향해 부끄러움을 표시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원로스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중심을 잡고 보다 적극적인 화합의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로 종정스님도 정화회의와 총무원측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총무원장선거가 원만히 치뤄 지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최근 조계사에서부터 분규 뿐 아니라 지역본사나 말사 주지를 두고 분규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큰 우려를 표한다. 절대 조계종 분규가 지방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상처가 큰 이 상태에서 지방 사찰까지 주지자리를 놓고 분규가 난다면 한국불교의 장래는 다시는 추스릴 수 없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조계종의 상처는 한국불교의 상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 모든 사부대중이 지혜와 힘을 모아 단결하고 화합하자.

## 조계종 사태 지원금 중단

# 승가교육마저 비틀

### 강사료도 못줘 수업 불가능... 승가대 김포학사 공사 애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들이 종단사태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승가대학원, 화엄학원, 백상원, 해광사, 금련사 등 교육기관들은 11월 11일 정화개혁회의의 조계종총무원 청사 점수이후 조계사 신협의 인출거부 등으로, 월경상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일체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교육원에서 매달 지원하는 경성비외에는 별다른 지원창구가 없어 월동비, 부식비, 교수수업비 등 운영전반에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

조계사 신협협동조합은 11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조계종과 관련된 기존의 예금주들은 예탁금 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정화개혁회의측에서는 이와관련된 예탁금의 지급중지를 요청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이 끝날때까지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계좌의 예탁금을 일시 지급 중지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공문을 총무기관에 보냈다.

이같은 조계사 신협의 인출거부에 따라 총무원측 교육원은 11월 제주은행 9층 임시 사무실에서 예금인출거부에 따른 교육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승가대학원의 용학스님은 "11월부터 중단 지원금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월동비는 차치하고서, 아직 학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강사수급 등 수업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기관의 지원금 중단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중앙승가대학교 법인사무처장 해관스님은 "승가대의 경우는 김포학사 이전공사중이라 지원금 지급이 하루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문제 만큼은 풀어가면서 해야지, 이 상태로는 승가교육체계가 10년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밖에 동국대에 재학중인 학인스님들의 기숙사 백상원과 해광사 등은 엄동설한에 월동비 조차 없어 학인스님들이 자체적으로 긴급재원을 마련하며 어렵게 살림을 운영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nia.com)

##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추대

태고종 제16세 종정에 덕암스님(84세)이 추대됐다. 태고종은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양총회를 열고 덕암스님을 제16세 종정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덕암스님은 1914년 태어나 19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법안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35년 일본 대성종교, 유점사 불교전통강원을 졸업한 덕암스님은 불교신문 총무국장,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조계종 종정사서, 태고종 총무원장, 월간불교 사장, 태고종 불교전통교육원장, 한중불교협회 회장, 법륜사 주지, 불교통신교육대학장 등을 거쳐 86년부터 93년까지 제13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했다. 현재 법륜사 조실이면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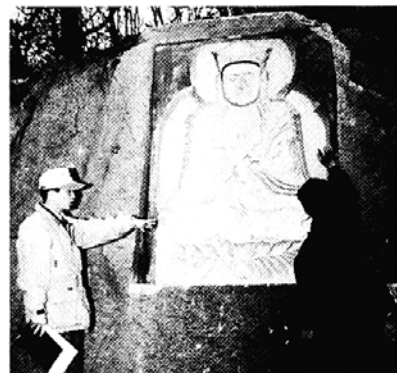
임사 방장, 태고종 종정, 대한불교연대연구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덕암스님은 박한영스님, 방한암스님, 송만암스님, 국목담스님, 박대룡스님, 정보성스님에 이어 태고종으로서는 7번째 종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 북한산 관음보살상에 망치질

### 공원공단 수유분소 자연보호명목 인부동원 훼손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관음보살상을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파괴하는 훼손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우이동 화계사와 삼성암 중간에 위치한 관음보살상의 파손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현장조사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 수유분소(분소장 이인형)가 인부를 동원해 15일 오후 3시경 우이동 화계사와 삼성암 중간에 위치한 관음보살상을 파괴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했다.

이날 훼손사건은 동부관리사무소 수유분소측이 '무속행위터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2개조로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근근요원 이모씨가 정과 망치로 관음보살상의 코, 눈, 어깨부분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인형 수유분소장은 "무속에 관계된 불상이기 때문에 훼손해도 관계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파괴한 것 같다"며 실무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시인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은 18일 동부관리사무소와 현장을 방문 사건경위 등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영기 운영부장은 "훼손행위는 과잉철거행위로서 관련직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며 "직원교육과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훼손된 관음보살상은 79년전 한 개인이 제작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nia.com)



◇범불교연대회의의 출범식에는 승가단체, 사찰신도회, 재가단체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 범불교연대회의의 16일 출범

강화를 통해 구체화 시켜, 사부대중 공의 개혁세력 결집으로 전회위부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연씨(대불련총동문회 사무총장)는 "종단의 진정한 개혁과 안정을 위해 이제 재가불자들이 일어서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주제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명스님(청계사 주지), 지광스님(능인선원 주지), 공종원씨(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백남석법사(조계종 포교사단 대표) 등 토론자들은 "스님과 재가자 모두가 주체적임을 갖고, 이번 종단사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자 기자

### 종단안정 토론회 열려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16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스님들과 불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범불교연대회의는 종단안정, 종단의 개혁을 통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불교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현진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지속적인 종단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범불교연대회의의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지방까지...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킴' 자도 모르는 '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인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는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중

무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락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제2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 포교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력하자, 준비하자, 드높은 세계로"**

■언제: 불기 2543(1999)년 1월 1일(금) 오후 1시~ 3일(일) 12시

■장소: 속리산 유스타운 (법주사 입구)

■동참금: 5만원 (군중생, 도서벽지 지도자 3만원) (2박 6식, 연수회 자료집, 기념품 지급)

■참가대상: 어린이 지도법사 및 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신청방법: 미리 접수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신청기간: 12월 7일~23일까지

■보내실곳: 우체국 601310-0037877-11 예금주 대불어(조종환)

■접수담당: 정희순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구

■문의: 본회 사무국 ☎(051)808-4569, 4570 (FAX) 808-4571 PC천리안 GO BOSAL(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각 지역 문의처

서울 (02)433-1506~7	선재마을 지선 사무국장
부산 (051)853-5486~7	부산지구(보현선원) 이유경
대구 (052)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대전 (042)633-1114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충남 (051)282-7201	경남지구 사무국 박영희
경북 (016)505-3143	김형중
제주 (064)702-1345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 이사)

귀의 삼보하옵고 이 땅 곳곳에서 미래의 불국토를 이끌어갈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으시는 지도자님들의 묵묵한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13년을 한결같이 어린이지도자의 연수회를 마련해 온 우리 회에서는 드높은 세계로 노력하는 지도자, 준비하는 지도자를 위한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엽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처음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지도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수행하는 삶을 일깨우고, 함께 하는 도반으로서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 포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모여 새해 새날의 아침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1월 푸르른 날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산단법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정관 ■부총재 해충 ■회장 천오 ■상임부회장 윤성 ■이시영조 덕진 살봉 해판 원정 심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 일동